

'주민 눈높이 1호 약속' 추진 호응

한득수 임실군수, 취임식서 약속한 읍면장실 1층 이전... 현장 중심 소통 행정 강화

한득수 임실군수가 민선 9기 취임식에서 약속한 주민 눈높이 1호 약속인 읍면장실의 1층 이전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 군수는 취임과 동시에 "많은 군민들이 2층 면장실 방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고령의 어르신들이 면장을 만나기 위해 2층으로 오르내리는 걸 힘들어 하신다"며 "이러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읍면장실을 청사 1층으로 이전하고, 읍면장의 상시 민원상담 체계를 운영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군은 주민 중심의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 혁신을 위한 읍면장실 1층 이전을 발빠르게 추진했다.

군은 주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읍면장을 만나 민원을 상담할 수 있도록 청사 내 2층이상에 위치했던 읍면장실을 민원실과 가까운 1층으로 순차적으로 이전하고, 누구나 부담없이 찾아와 상담할 수 있는 개방형 민원상담 환경을 조성했다.

군은 행정의 문턱을 낮추고 주민 눈높이에 맞춘 열린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읍면장실을 1층으로 이전하고, 민



한득수 임실군수가 민선 9기 취임식에서 약속한 주민 눈높이 1호 약속인 읍면장실의 1층 이전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원인이 언제든지 편안하게 방문해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특히, 읍면장은 사무실에서 주민을 기다리는 행정에서 벗어나 상시 민원상담을 통해 주민 의견을 직접 듣고 생활불편과 지역현안을 신속히 해결하는 현장중심 행정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군은 또한 기존 읍면장 집무공간은 단순한 사무공간이 아닌 주민을 위한 행정공간으로 새롭게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한득수 군수는 "행정은 군민에게 먼

저 다가가는 것이 기본"이라며 "읍면장실을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공간으로 옮겨 언제든 편하게 찾아와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행정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어르신과 교통약자 등 행정접근이 어려운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작은 민원 하나도 현장에서 바로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책임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행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맞춤형 귀농귀촌 정책 추진 '속도'

남원시가 귀농·귀촌 준비 단계부터 안정적인 정착에 이르기까지 전주기를 아우르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 '버물고 싶은 농촌, 살고 싶은 남원'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매년 1,200여 명에 달하는 귀농귀촌인이 전입해 지역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으며, 남원시는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귀농·귀촌을 지역 활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예비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준비부터 정착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가동 중이다.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을 중심으로 상담과 정보 제공, 체험, 주거 지원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예비 귀농귀촌인은 자신의 여건에 맞는 정보를 제공받고 단계별 맞춤형 상담과 다양한 지원사업을 연계해 초기 시행착오를 줄이며 안정적으로 농촌 생활을 준비할 수 있다.

특히 시는 이시비와 주택수리비, 자녀정착금, 주택 및 시설 설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도 추진해 초기 정착에 필

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귀농 체험학교와 실용교육,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을 연계한 장기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현장 중심의 실전 영농 기술을 체득할 수 있도록 지원, 현장 중심의 교육은 귀농인의 영농 역량을 높이고 안정적인 농업 창업으로 이어지는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귀농 초기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한 임시거주시설, 귀농인의 집과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남원에서 살아볼 집 등 임시거주시설을 확대 운영해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정주 여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탐색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착지원 외에도 지역사회와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 만들기에도 노력, 재능기부단, 동아리 활동, 마을환경회 등 주민 화합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특히 '귀농귀촌 동지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마을 공유카페 조성, 청년 인턴십, 농특산물 마케팅 및 마을 홍보 등을 지원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민과 귀농귀촌인이 한데 어우러지는 따뜻하고 활기찬 농촌공동체를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 나선다

남원시, 심리적 충격 완화·안정적 일상회복 지원 위해 시행

남원시는 자살 유족의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사업을 7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자살 유족은 갑작스러운 사별로 인한 깊은 슬픔과 충격뿐만 아니라 상속, 법률, 경제적 문제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자살 고위험군으로, 연구에 따르면 자살 유족의 자살 위험은 일반인보다 약 22.5배 높으며 (삼성서울병원, '22) 사고 초기부터 신속한 개입과 지속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남원시 보건소는 자살 사고 발생 시 전담 인력이 24시간 이내 정례식장이나 경찰서 등 현장을 방문해 유족에게 서비스를 안내하고 초기상담을 추진하는 등 신속한 위기 개입 체계를 운영한다.

또한, 초기 1~3개월 동안 집중 사례관리를 실시하며 △상담 및 자조모임의 심리부검 등 심리·정서 지원 △법

률·행정 처리비 △정신과 치료비 △학자금 △일시주거비 △특수청소비 등 환경·경제 지원 △지역사회 복지 자원 연계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등 유족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특히 남원시는 남원의료원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를 비롯해 경찰, 소방 등 지역 유관 기관과 협력해 자살 유족을 초기에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히 연계하는 지역 중심의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남원시 강희동 정신건강팀장은 "자살 유족은 갑작스러운 상실로 심리적 고통은 물론 다양한 현실적인 어려움까지 함께 겪게 된다"며, "유족들이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사고 초기부터 촘촘한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회복을 돕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강천산, 여름밤 특별한 매력 선사

순창군, 24일~8월 23일 강천산군립공원 야간개장 운영

순창군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강천산군립공원 여름 성수기 운영과 함께 야간개장을 실시하며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군은 오는 7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강천산군립공원 여름 성수기 특별운동을 실시하고, 같은 기간 야간개장을 통해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선사한다고 밝혔다.

야간개장은 오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입장이 가능하며, 오후 9시 30분까지 관람할 수 있다. 개장 구간은 매표소부터 천우폭포까지 약 1.3km로, 시원한 계곡과 울창한 숲길을 따라 강천산의 색다른 야경과 자연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다만 기상 여건에 따라 입·퇴장 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특히 여름철 강천산은 울창한 숲이 만들어내는 시원한 그늘과 맑은 계곡, 천우폭포의 청량한 물소리가 어우러져 한낮의 무더위를 식히는 데로 피서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여기에 야간개장까지 더해져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여름밤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관광 명소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군은 성수기 동안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매표·검표, 교통 및 주차 관리, 환



경정비, 행락질서 유지 등 분야별 운영반을 편성·운영한다. 또한 시설물 사전 점검과 친절·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불법 상행위와 공원 내 질서 저해 행위에 대한 계도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원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주차 질서 확립과 화장실 및 편의시설 관리,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비를 강화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도 운영해 누구나 안심하고 강천산을 찾을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강천산은 세계적 아름다운 자연을 품고 있지만, 여름밤의 강천산은 낮과는 또 다른 특별한 매력을 선사하는 공간"이라며 "많은 관광객들이 가족, 연인과 함께 강천산에서 시원한 여름밤의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 통

남원시보건소 불쾌 해충 집중 방역

남원시는 최근 강우와 기온 상승으로 고온다습한 환경이 지속되면서 노래기 등 불쾌 해충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환경조사와 방역 활동에 적극 나섰다.

이번 방역은 천변 일대 교량 등 불쾌 해충 집중 출몰지역을 중심으로 방역기동반을 투입하여 처량용 및 휴대용 방역기를 활용 방제한다.

노래기는 지네와 비슷한 외형으로 사람을 물거나 쏘지는 않으나 여름철 장마 전후로 습도가 급증할 때 개체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주로 야간에 활동하는 그늘지고 습한 환경을 선호하는 습성이 있다.

이에 불쾌 해충 발생지 주변의 썩은 풀, 목재, 낙엽, 벽돌 더미 등을 정리하고 배수로 청소와 환기를 통해 건조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의무소독시설 및 개인 사유지에서 자체 소독과 지속적인 환경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소방서, 비상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임실소방서(서장 김상곤)는 구급차의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비상급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당부했다.

구급대원은 현행법상 비상급환자의 경우 구급 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신고 내용만으로 응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비상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 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 징후가 안정된 단순열상 및 할과상환자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의 정기검진 및 임원목적 이송요청 등이다.

이러한 비상급 출동으로 인해 소방력의 공백이 생길 수 있고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의 이송이 지연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